

제 4 교시

사회탐구 영역 (윤리와 사상)

성명	수험번호	3	제 ( ) 선택
----	------	---	----------

윤리와 사상

1.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한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? **도가 (사상가 권 필)**

○○께  
 오늘은 지극한 덕(德)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그곳에서는 다 같이 무지(無知)하여 본래의 마음을 떠나지 않으며, 다 같이 욕심이 없으므로 소박합니다. 종래의 어짊[仁]과 의로움[義]은 성인(聖人)이 도(道)와 덕을 해쳐서 만든 것이니, 이는 나무의 순박함을 해쳐 술잔을 만든 것과 같습니다. ... (후략).

맹자 불교

- ① 성인의 예(禮)에 따라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.
- ② 만물에 대한 분별적 관념을 버리고 자연의 순리를 따른다.
- ③ 천명(天命)에 따라 몸과 마음을 삼가는 신독(慎獨)에 힘쓴다.
- ④ 잃어버린 본래의 마음을 되찾고[求放心] 의로운 일을 쌓는다.
- ⑤ 탐욕을 고통의 근원으로 여기고 열반에 이르는 수행에 힘쓴다.

2. 고대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프루타 모리스 플라톤 개념 X 피=구동

갑: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. 통치자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피치자에게 정의로운 것으로 선언하고, 이를 위반하는 자를 범법자나 불의한 자로 규정하여 처벌한다.  
 을: 정의는 각자가 제 할 일을 하는 것이다. 국가의 세 계층인 통치자, 방위자, 생산자가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것이 정의이다.

- ① 갑: 정의는 현실 세계가 아니라 이상 세계에서 찾아야 한다.
- ② 갑: 법을 준수하는 것은 피치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온다.
- ③ 을: 정의로운 국가에서 철학과 정치권력은 하나로 결합된다.
- ④ 을: 계층 간의 간섭은 배제해야 하지만 역할 교환은 해야 한다.
- ⑤ 갑, 을: 이성보다는 감각적 경험을 통해 정의를 파악해야 한다.

3. 사회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자유 공화

갑: 어느 누구도 나의 활동에 간섭하지 않을 때 참된 자유가 실현된다. 참된 자유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을 때 실현되며, 불간섭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자유의 영역도 넓어진다.  
 을: 어느 누구도 나를 자의적으로 지배하지 않을 때 참된 자유가 실현된다. 참된 자유는 고립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간섭의 부재가 아니라, 상호작용하는 행위자들의 존재를 전제하는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의미한다.

- ① 갑: 참된 자유는 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적극적 자유이다.
- ② 갑: 개인은 사적 영역이 줄어들수록 더 많은 자유를 누린다.
- ③ 을: 비지배로서의 자유는 사회와 분리된 삶을 통해 실현된다.
- ④ 을: 어떤 간섭도 없어야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완전히 실현된다.
- ⑤ 갑, 을: 법에 의한 통치는 참된 자유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.

통치 인정

4. 그림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. 갑,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갑: 마음 수양은 욕구를 줄이는 것 [寡欲]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. 선한 본성을 따르면 대인(大人)이 되고, 육체적 감각을 따르면 소인(小人)이 됩니다.

을: 마음 수양은 예(禮)에 따르는 것보다 더 빠른 길이 없습니다. 예는 성인(聖人)이 본성을 변화시키고 인위를 일으켜 만든 것이며, 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.

- ① 갑은 소인과 달리 대인은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고 본다.
- ② 갑은 모든 육체적 욕구를 제거해야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.
- ③ 을은 하늘을 토착의 모범으로 삼아 예를 확립해야 한다고 본다. **천방위**
- ④ 을은 백성들의 욕구는 예를 기준으로 조절되어야 한다고 본다.
- ⑤ 갑, 을은 도덕적 인식 능력은 마음 수양으로 형성된다고 본다.

이이오

5. (가)의 서양 사상가 갑, 을, 병의 입장을 (나)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, A ~ D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(가) 갑: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국가에 의한 구속을 스스로 부과한다. 이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으로 인한 전쟁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다. **환**  
 을: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비교적 평화롭게 살아가지만 불확실하게 향유하던 자연권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 자연법의 집행권을 사회에 양도한다. **크**  
 병: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게 평등하지만 사유 재산의 발생으로 인해 불평등이 생기자 자신의 몸과 모든 힘을 일반 의지에 양도한다. **쿠소**

(나) **<범례>**  
 □ : 출발 조건  
 ◇ : 판단 내용  
 → : 판단 방향  
 ○ : 사상가의 입장

- ① A: 국가는 자연 상태에서의 불의를 극복하기 위한 합의체인가? **권위주의 X**
- ② B: 국가는 개인의 권리 양도 없이도 성립 가능한 공동체인가? **X**
- ③ B: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의 산물인가? **OO**
- ④ C: 국가는 개인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할 권한을 갖는가? **X**
- ⑤ D: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를 대행하는가? **OO**

6.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,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. 이 진리를 깨달으면 생사(生死)의 흐름을 끊을 수 있다. 비구들이여, 열심히 닦아 익히며 바른 법(法)과 계율로 정진하라. 정진하여 깨달음을 얻은 자는 번뇌가 불꽃처럼 일어나는 괴로움이라는 과보(果報)를 받지 않는다.

- ① 삼독(三毒)을 제거하면 해탈에 이를 수 있다. **옳**
- ② 무명(無明)을 상취하여 윤회에서 벗어나야 한다. **옳**
- ③ 선업(善業)을 쌓아 나가면 삶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.
- ④ 연기(緣起)를 깨달아 나와 남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.
- ⑤ 중도(中道)를 닦아 오온(五蘊)에 대한 집착을 끊어야 한다.

7. 고대 서양 사상가 갑,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갑: 자제력 없는 사람은 악을 알고도 정념 때문에 악을 행할 수 있다. 그러나 자제력 있는 사람은 악을 알면 이성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는다. 이성은 사람의 고유한 기능이며 실천적 지혜는 영혼의 이성적 부분과 관련된 덕이다.

을: 정념에 속박된 사람은 선을 알고도 악을 행할 수 있다. 그러나 이성에 인도되는 사람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만을 행한다. 후자가 품는 최고의 욕망은 자기와 신과 사물의 필연성을 인식하는 것이다.

- < 보 기 >
- ㄱ. 갑: 인간의 모든 악행은 자제력 없음에서 비롯된다.
  - ㄴ. 갑: 실천적 지혜가 있어야 절제의 덕을 갖출 수 있다.
  - ㄷ. 을: 정념 발생의 질서를 이해하면 정념을 극복할 수 있다.
  - ㄹ. 갑, 을: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해야 행복을 누릴 수 있다.

- ① ㄱ, 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ㄱ, ㄷ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ㄴ, ㄹ
- ④ ㄱ, ㄷ, ㄹ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ㄴ, ㄷ, ㄹ

8. 고대 동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갑: 천하에 도(道)가 있으면 예악(禮樂)과 정벌(征伐)이 천자로부터 나오고, 천하에 도가 없으면 예악과 정벌이 제후로부터 나온다. 군자(君子)는 도를 구할 뿐 밥을 구하지 않으며, 도를 걱정할 뿐 가난을 걱정하지 않는다.

을: 천하에 도가 있으면 전쟁이 없으므로 말이 농사를 짓는데 쓰이고, 천하에 도가 없으면 전쟁이 그치지 않아 말이 전쟁터에서 새끼를 낳는다. 도는 무위(無爲)하며 성인(聖人)은 도 하나만을 지녀 천하의 본보기가 된다.

- ① 갑: 도는 각자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행할[正名] 때 실현된다. **옳**
- ② ㄱ: 도는 수행자가 자아조차 잊어버려야[坐忘] 체득될 수 있다.
- ③ 을: 도는 본성[性]을 교정하기 위해 성인이 제정한 규범이다.
- ④ 을: 도는 인(仁)과 예(禮)가 사라졌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.
- ⑤ 갑, 을: 도는 만물의 시비선악(是非善惡)을 구별하는 기준이다.

기비선악 구별

9. 사회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갑: 민주주의는 시민이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의미할 수도 없다. 민주주의는 시민의 표를 얻는 데 성공한 정치 엘리트가 모든 정치적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받는 제도적 장치일 뿐이다. **옳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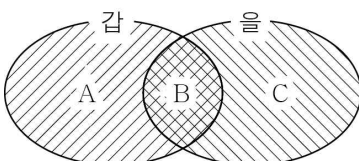
을: 민주주의에서는 담론 규칙을 토대로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 시민 사회의 정치적 의지가 형성되어야 한다. 정책 결정의 과정은 공적 심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, 이는 시민의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다. **옳**

- ① 갑: 시민은 정치 엘리트를 승인하거나 부인할 기회가 없다.
- ② 갑: 정치 엘리트는 시민보다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쉽다.
- ③ 을: 공적 심의가 이루어지는 공론장은 사회의 통합에 기여한다. **옳**
- ④ 을: 정책 결정의 과정은 담론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정당하다.
- ⑤ ㄱ, 을: 민주주의는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로 완성된다. **옳**

10. (가)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을 (나) 그림으로 표현할 때, A~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(가) 갑: 도덕성은 이성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. 덕과 악덕이 유발하는 인상이나 소감을 통해서만 우리는 덕과 악덕의 차이를 확정할 수 있다. **옳**

을: 도덕성은 행위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애정 때문이 아니라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에 달려 있다. **옳**

(나)  **< 범례 >**  
 A: 갑만의 입장  
 B: 갑, 을의 공통 입장  
 C: 을만의 입장

- < 보 기 >
- ㄱ. A: 도덕적 선악에 대한 구별은 쾌락과 고통에 의존한다. **OX**
  - ㄴ. B: 도덕적 선악에 대한 구별은 보편성을 지닐 수 있다. **OO**
  - ㄷ. C: 어떤 감정도 도덕적 행위를 하는 데 기여할 수 없다. **OX**
  - ㄹ. C: 도덕적 의무의 이행과 자율적 행위는 양립할 수 없다. **OX**

- ① ㄱ, 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ㄱ, ㄹ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ㄷ, ㄹ
- ④ ㄱ, ㄴ, ㄷ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ㄴ, ㄷ, ㄹ



11. 중세 서양 사사가 갑,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**아우**  
 갑: 최고선은 영원한 생명이며 최고악은 영원한 죽음이다.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선의지에 따라 살아야 하며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. 신국(神國)의 시민은 영원한 생명을 목표로 삼으며 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.

**아우**  
 을: 선(善)은 행해져야 하고 악(惡)은 피해져야 한다는 것은 자연법의 제일 원리이다.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본성인 이성에 따라 선을 지향하는 성향, 즉 신에 대한 진리를 알고자 하고 사회에서 살려는 자연적 성향을 갖는다.

- ① 갑: 선(善)을 발휘하면 선의 은총 없이도 인격에서 벗어난다.
- ② 갑: 악은 인간의 의지로부터 비롯되며 선에 대립하는 것이다.
- ③ 을: 자연법은 인간의 실천이성이 자율적으로 제정된 것이다.
- ④ 을: 자연적 성향에 대한 성찰로 신이 원하는 바를 알 수 있다.
- ⑤ 갑, 을: 신의 계시 없이 이성으로 신의 존재를 논증할 수 없다.

**② 악은 선의 부재! / ③ 제정국주의**

12.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사가의 입장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**칸트**

- 공화정에서 전쟁을 개시하려면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데 국민은 전쟁의 재앙을 각오해야 하므로 전쟁을 꺼리게 된다. 공화정은 영원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체제이다.
- 개인들이 사회 계약에 기초하여 국가를 세우듯이,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결성한 연방 체제에 기초하여 영원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.

**< 보 기 >**

- ㉠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정이 되어야 한다.
- ㉡ 전쟁 억제력을 지닌 강력한 세계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.
- ㉢ 국제법은 개별 주권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한다.
- ㉣ 평화의 실현을 이성이 명령하는 도덕적 의무로 보아야 한다.

- ① ㉠, ㉡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㉠, ㉢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㉡, ㉣
- ④ ㉠, ㉢, ㉣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㉡, ㉣, ㉣

13. (가)의 현대 서양 사사가 갑, 을의 입장에서 볼 때, (나)의 ㉠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**카르티나**  
 (가) 갑: 신 앞에 홀로 서는 것, 다시 말해 전적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큰 노력과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다. 이는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일이다.  
 을: 인간의 본성을 구상하는 신이 없기에 인간은 스스로가 구상하는 무엇이며, 스스로가 원하는 무엇이이다. 인간은 먼저 존재하고 그 후에 정의된다.

(나) ㉠. 그러면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다.

- ① 갑: 지성을 발휘하여 주관적 진리를 극복하라
- ② 갑: 윤리적 삶을 통해 절망에서 완전히 벗어나라
- ③ 을: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고 절대자에게 의지하라
- ④ 을: 인간의 보편적 본성을 발견하고 온전히 실현하라
- ⑤ 갑, 을: 주체적 결단을 통해 참된 자기 자신이 되어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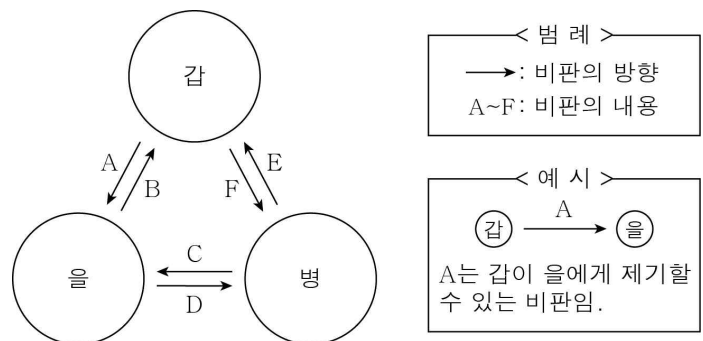
[14~15] 갑은 중국 사사가, 을과 병은 한국 사상가들이다. 물음에 답하시오.

갑: 하늘이 명(命)한 본성[性]이자 마음의 본체인 양지(良知)는 자연히 대상을 환하게 알 수 있는 능력이다. 맹자가 말한 시비지심(是非之心)은 지(知)이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 이른바 양지이다. **왕인**

을: 하늘이 명한 본성은 이(理)와 기(氣)가 부여된 것 중에서 이의 본연의 자리를 가리킨다. 그 가리키는 바가 이에 있고 기에 있지 않기에 순선하여 악이 없다. 사단은 **이의 발현**이므로 선하지 않음이 없다. **이왕**

병: 하늘이 명한 본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한다. 본성이 선을 좋아하기에 측은(惻隱)·사양(辭讓)의 마음이, 악을 싫어하기에 수오(羞惡)·시비(是非)의 마음이 있다. 네 가지 마음을 확충하면 사덕을 이룰 수 있다. **정약용**

14. 갑, 을,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, A~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

- ① A: 인간은 선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간과한다.
- ② B, D: 인간은 기질지성(氣質之性)을 지니고 있음을 간과한다.
- ③ C, E: 인간의 시비지심은 본성을 확충해야 **확득**함을 간과한다.
- ④ D, F: 하늘이 인간에게 명한 본성이 곧 천리(天理)임을 간과한다.
- ⑤ E: 동물과 인간 모두에게 하늘이 양지를 부여했음을 간과한다.

**정약용: 비판: 실천적 / 사덕: 확득**

15.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의 입장에서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**이왕**

측은해하는 마음은 애(哀)에 속하고,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오(惡)에 속한다. 공경하는 마음은 구(懼)에 속하고, 옳음과 그름을 구별하는 마음은 희(喜)·노(怒)가 마땅한가 마땅하지 않은가를 아는 감정에 속한다. **칠정 이외에 사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.** **이이**

- ① 악(惡)은 기질의 탁함과 치우침에서 비롯된 것임을 간과한다.
- ② 욕(欲)은 기에 근원을 두고서 드러나는 정(情)임을 간과한다.
- ③ 발(發)은 **기만 가능**하며 이는 발하는 근거일 뿐임을 간과한다.
- ④ 인(仁)은 남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의 실마리[端]임을 간과한다.
- ⑤ 성(誠)은 경(敬)에 힘써야 나아갈 수 있는 경지임을 간과한다.

16. 고대 서양 사상이자 갑,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갑: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해도 좋은 유일한 경우는 심신에 고통을 주지 않는 경우이다. 충족하지 않아도 고통을 낳지 않는 욕구를 충족하려는 것은 헛된 생각에서 비롯된다.  
 을: 쾌락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. 무엇을 받아들이거나 피하려는 의지는 우리의 능력 안에 있다. 자연의 필연성을 받아들이고 정념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성애 따라 살아야 한다.

- ① 갑: 자연적이지 않은 욕구도 제한 없이 충족해야 한다.
- ② 갑: 사회 전체의 쾌락을 위해 공적인 삶에 헌신해야 한다.
- ③ 을: 이성을 온전하게 발휘하여 모든 정념을 제거해야 한다.
- ④ 을: 쾌락 그 자체는 선이지만 쾌락에 탐닉하지 않아야 한다.
- ⑤ 갑, 을: 평온한 마음을 갖기 위해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.

17. 다음을 주장한 중국 사상의 입장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

마음은 본성[性]과 감정[情]을 주재한다. 마음을 바르게 하려면 먼저 뜻을 정성스럽게 해야 하고, 뜻을 정성스럽게 하려면 먼저 앎을 극진히 해야 하며, 앎을 극진히 하려면 먼저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[理]를 궁구해야 한다.

- < 보기 >
- ㉠ 격물(格物)을 통해 천리(天理)를 밝힐 수 있다.
  - ㉡ 마음은 사덕(四德)과 사단(四端) 모두를 포괄한다.
  - ㉢ 마음의 이치와 사물의 이치는 그 근원이 서로 다르다.
  - ㉣ 앎이 극진해지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겨난다.

- ① ㉠, ㉡    ② ㉠, ㉢    ③ ㉠, ㉣
- ④ ㉠, ㉢, ㉣    ⑤ ㉠, ㉣, ㉣

18.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의 입장에만 모두 '✓'를 표시한 학생은? [3점]

행복은 유일하게 바람직한 목적이다. 다른 모든 것은 이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만 바람직하다. 행복이란 쾌락을, 그리고 고통의 부재를 뜻한다.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양과 질 모두의 측면에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최대한 누리는 것이다.

학생	입장				
	갑	을	병	정	무
○	○	○	○	○	○
×	○	○	○	○	○
○	○	○	○	○	○
×	○	○	○	○	○

- ① 갑    ② 을    ③ 병    ④ 정    ⑤ 무

19. 한국 불교 사상이자 갑, 을의 입장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갑: 부처의 모든 가르침은 일심(一心)과 이문(二門)을 벗어나지 않는다. 진여문(眞如門)에 의지해 지행(止行)을 닦고 생멸문(生滅門)에 의지해 관행(觀行)을 닦아야 한다. 지와 관의 두 수행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.  
 을: 선정(禪定)은 본체[體]이고 지혜(智慧)는 작용[用]이다. 선정이 곧 지혜이므로 고요하면서도 밝은 앎이 있고, 지혜가 곧 선정이므로 밝게 알면서도 항상 고요하다. 선정과 지혜의 두 수행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.

- < 보기 >
- ㉠ 갑: 부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은 본래 하나이다.
  - ㉡ 을: 경전 공부 없이는 불성(佛性)을 자각할 수 없다.
  - ㉢ 을: 습기(習氣)가 있으면 선정과 지혜를 닦을 수 없다.
  - ㉣ 갑, 을: 각 종파가 추구하는 궁극적 진리는 다르지 않다.

- ① ㉠, ㉡    ② ㉠, ㉢    ③ ㉠, ㉣
- ④ ㉠, ㉢, ㉣    ⑤ ㉠, ㉣, ㉣

20. 사회사상이자 갑, 을, 병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갑: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동 생산물이 최대 가치를 갖도록 노력할 뿐이다. 그러나 이를 통해 개인은 시장의 '보이지 않는 손'에 이끌려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게 된다.  
 을: 개인의 이익 추구하고 사회의 이익 증진이 항상 조화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. 자본주의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투자의 사회화를 추구해야 한다.  
 병: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 경쟁이 계획 경제보다 우월하다. 자유 경쟁은 효율적이지만 계획 경제는 모든 과업에 대해 억지로 동의하도록 강요하여 노예의 길로 이끌 뿐이다.

- ① 갑: 정부는 국부 증대를 위해 계획 경제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.
- ② 을: 시장 실패는 모든 생산 수단의 공유로써 해결되어야 한다.
- ③ 병: 정부는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.
- ④ 갑, 병: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.
- ⑤ 을, 병: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완전 고용을 실현해야 한다.

\* 확인 사항  
 ○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(표기)했는지 확인하십시오.